

2025. 5. 14.

헌정 질서 유린하는 ‘알박기 인사’,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후 잠시 주춤한 듯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다시 주요 농업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 강행을 시작했다. 어제(13일)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고 송미령 장관은 공사에 인사 발령을 통지했다. 이어 공사는 신임 사장이 오늘(14일) 전남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불과 20일을 앞두고 있다. 20일 후에는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묵인했던 각료로 구성된 대행 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며 최소한의 행정 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임명은 엄정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성도, 정당성도 없는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통치 잔재를 심으려는 시도이며, 내란 세력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엄연한 권한 남용이다.

송미령 장관과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즉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임명한 위헌적 인사를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절차를 중단하라! 내란 은폐 행위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임이 명백한 인사권에 대해 더 이상 손끝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깜깜이 인사, 밀실 인사, 정치 보은 인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국민은 이 모든 불법과 월권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밀실 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엄단할 것이다. 결국 내란은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하게 종식될 것이며, 내란에 복무한 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 서삼석, 임미애